

# 맹맹이덩굴로 생의 희로애락 견다

도무형문화재 정동별립장  
홍양숙 전승교육사 작품전  
정동 활용 제주 전통 공예  
모자 등 70여 점 한자리에  
“작업 고통 뒤 완성의 기쁨”  
5월 19일까지 돌문화공원



홍양숙 정동공예 명인이자 정동별립장 전승교육사가 엮은 정동별립.

맹맹이덩굴을 일컫는 제주 방언인 '정동'으로 만든 제주도 전통 모자 정동별립. 패랭이와 비슷한 모양의 정동별립은 어느 모자처럼 비를 피하거나 햇빛을 막기 위해 썼다. 정동별립의 제작은 제주시 한림읍 귀덕1리 성로동에서 집중되어 왔다. 1930년대만 하더라도 성로동 안에 '정동별립을 엮는 곳'을 의미하는 '별립청'이 7곳이나 있었다고 한다.



정동물구덕·물허벅

제주도무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된 정동별립장 전승교육사(전 전승교육 조교)이자 정동공예 대한명인인 홍양숙씨도 귀덕리 출신이다. 홍양숙 명인은 큰아버지인 흥만년 보유자에게 기능을 전수 받았다. 대한민국의 전통 공예대전 특선 등 각종 공모전에서 40회 수상 경력이 있고 국립민속 박물관 등에서 전시·시연을 이어온 그가 제주돌문화공원에서 이달 19일부터 5월 19일까지 두 달 동안 제주에서만 확인된다는 맹맹이덩굴 이용 전통 공예인 정동별립의 세계를 보

여주는 전시를 연다. 돌문화공원 개원 15주년을 기념해 오백장군갤러리 기획전으로 마련한 '홍양숙 정동별립전'이다.

이번 전시에는 정동별립 기법으로 엮은 전통모자, 생활용품 등 70여 점이 나온다. 정동별립에 매달린 지 올해로 44년이 되는 흥 명인이 직접 실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작품을 중심으로 골라 선보이고 있다.

홍양숙 명인은 전시에 부친 글에서 정동별립 작품 하나를 만드는 데 들이는 엄청난 괴로움 한편에 완성으로 얻어지는 기쁨을 털어냈다. 오로지 두 손과 몇 개의 소도구로 하는 수공예에서 손가락마다 연골이 닳고, 손톱은 시도 때도 없이 부러지고, 허리와 무릎은 비명을 지르지만 정동별립이 완성되었을 때는 고통의 자리를 채우고도 남는다고 했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정동별립으로 엮어 온 흥 명인은 “어릴 때부터 병약한 체질이었지만 정동줄기만 잡으면 아픈 줄도 모른 채 밤샘 작업하기 일췌였다”며 “저를 정동별립이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문의 710-7750. 전선희기자

# 제주비엔날레 향방 설문 결과 더 아리송

도립미술관 세 그룹별 시행  
‘재추진’에 도민 81% 지지  
비엔날레 아닌 제주형 전시  
도민 79%가 찬성 입장 보여  
예술계·공무원엔 찬반 팽팽  
“간담회 등 거쳐 최종 결정”

제주비엔날레 재추진에 대해 제주도민 81%, 문화예술계는 58% 정도가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비엔날레가 아닌 제주형 미술행사 개최 의견을 묻는 별도 문항에서도 제주도민 79%, 문화예술계 54.7%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7년 제1회 제주비엔날레를 주최한 제주도립미술관이 지난 2-9일 제주도민, 도내의 문화예술 관계자, 제주도 공무원 세 그룹으로 구분해 실시한 '제주비엔날레 진단 설

문조사 결과'다. 이번 설문은 제주비엔날레 인지도, 제주비엔날레 재추진에 대한 찬반 여부, 도립미술관 전시 방향 등 총 16개의 문항으로 진행됐다. 응답자는 도민 500명, 문화예술 관계자 287명, 공무원 121명 등 총 908명에 이른다.

도립미술관이 지난 19일 공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제주비엔날레 재추진에 대해 도민 81%는 '재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문화예술 관계자와 공무원은 '재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57.5%, 55.4%로 조사됐다. 문화예술 관계자와 공무원의 경우 재추진을 둘러싼 찬반 입장이 팽팽한 편이다.

'재추진 이유'에는 세 그룹 모두 '제주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재추진 반대 이유'로는 도민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작품과 전시내용', 문화예술 관계자와 공무원은 '도립미술관 내부 역량강화와 운영 집중 필요'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번 설문에서는 제주비엔날레가 아닌 제주 지역 작가 중심의 제주형 미술행사 개최에 대한 의견도 별도로 물었다. 그랬더니 제주형 미술행사를 찬성한다는 응답이 도민 79.2%, 문화예술 관계자 54.7%, 공무원 54.5%였다. 이 경우도 문화예술 관계자와 공무원은 찬반 비율이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제1회 제주비엔날레 관람 경험을 묻는 질문엔 도민 5.8%만 관람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공무원도 28.9%에 그쳤고 그나마 문화예술 관계자는 절반에 가까운 49.1%가 관람했다고 밝혔다. 관람 경험자 중 만족도를 물었다니 도민 55.1%, 문화예술 관계자 26.2%, 공무원 31.4%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도립미술관 측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문화예술 관계자 간담회와 제주비엔날레 자문위원회를 개최 종합검토 후 비엔날레 재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선희기자

# 제주 서부 지역 문화공간 교류 첫발

제주문예재단 운영 맡은  
옛 산양초 '예술꽃 산양'  
저지 공공수장고 도예전

제주도 서부 지역에 있는 공공 문화공간들이 서로 손을 잡았다. 제주시 한경면 옛 산양초등학교에 창작 레지던시 시설로 조성된 '예술꽃 산양' 운영을 맡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인근 저지문화예술인마을에 들어선 제주도 문화예술공공수장고에 있는 작품을 선보이는 기획전을 마련했다.

이달 16일 시작돼 4월 25일까지 한 달 넘게 이어지는 이번 기획전은 '담아, 봄'이란 이름을 달았다. 제주 전통 가마인 노랑굴이 있는 산양리의 특성을 살려 제주 흙으로 만들어지거나 제주를 주제로 담은 도예 작품을 선별해 전시하고 있다. 참여 작가는 양재식, 허민자, 오창윤, 백승자, 강희욱, 김남숙, 강승철, 김영수 도예가다.



강승철의 '옹기. 흙의 기억으로부터'.

예술꽃 산양 측은 “서부 권역 문화예술 공간의 교류를 시작하는 첫 전시”라며 “관람객 호응이 좋으면 앞으로 정기적으로 교류전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 관람 가능하다. 1일 5회, 회당 10명 이하로 인원을 제한했다. 문의 070-8990-8205. 전선희기자

# 프랑스자수의 작은 위로 두 번째 공방 회원 작품전

제주 '로사의 프랑스자수' 공방이 제주시 아라동 심현갤러리에서 코로나시대 작은 위로를 전하는 작품들로 두 번째 회원전을 열고 있다. '수수한 봄날'이란 이름 아래 이달 20일 시작돼 4월 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엔 프랑스자수, 야생화 자수, 입체자수를 이용한 작품들이

나왔다. 커튼, 벽걸이, 액자, 램프, 램프 셰이드 등 한 뭉치 한 뭉치 수작업으로 탄생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프랑스자수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발달한 자수를 통틀어 일컫는다. 도안이 그려진 원단 위에 바늘과 자수실로 여러 가지 스티치 기법을 이용해 채워나가는 일종의 수예다. 프랑스자수 기법은 수백여 가지로 알려졌는데, 30-40여 가지의 스티치만 배우면 일상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전

을 소재로 한 옷, 모자, 스카프, 가방 등에도 응용이 가능하다.

'로사의 프랑스자수'의 고은실씨는 “손재주가 없어도 바늘과 자수실만 있으면 누구나 부담 없이 할 수 있고 자수를 하는 동안은 오롯이 수에만 집중해 마음의 쉼과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며 “프랑스자수는 마치 천 위에 예쁜 실로 그리는 저마다의 그림과 같다”고 했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문화가 쬐기

## 찾아가는 연주회 신청 받아

제주도립 제주예술단이 2021 찾아가는 연주회 신청을 받고 있다.

찾아가는 연주회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부족한 지역을 직접 방문해 열리는 공연으로 생활 속에 문화의 향기가 스며들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다. 제주예술단은 5월부터 11월까지 찾아가는 연주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대상은 제주시 읍·면·동 주민센터,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 시설이나 공공주택 등이다. 찾아가는 연주회를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제주예술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이달 31일까지 이뤄진다. 문의 728-2745.

## 도시재생 콘텐츠 등 공모

제주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도시재생·사회적경제 콘텐츠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모는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경제조직(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 규모는 프로젝트당 최대 500만원 이내로 '돌봄', '리엔업', '에너지', '정원', '축제' 등 지정 콘텐츠와 도시재생·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자율 콘텐츠를 제안 받는다. 신청서 접수는 이달 29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 참고. 문의 727-0612.

## 자녀 위한 독서 지도법 강좌

제주시 한경도서관은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4월 7일부터 28일까지 '자녀를 위한 독서 지도법'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책 읽는 부모, 공감의 책 읽기, 성장을 위한 책 읽기, 확장을 위한 책 읽기 등 4개 주제로 매주 수요일 비대면 화상 플랫폼 줌(ZOOM)을 이용해 진행된다. 총 8권의 관련 주제 도서를 활용해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독서 지도 방법과 어린이들의 올바른 독서습관 형성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모집 인원은 20명으로 이달 22일부터 제주도 공공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접수한다. 문의 728-8602.

**콘크리트 먼처리  
콘크리트 폴리싱  
세라믹 폴리싱  
테라조 연마 광택**

에폭시/우레탄 도막제거

표창장

한국환경위생협동조합 이사장 직책회

귀하는 자조자립협회의 활동조항 실천을 표명함으로써 실천하여 소상공인 활동조항 실천화 및 경제적 제고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주변비엔날레 박영

제주대 중앙도서관 도끼다시바닥

**아직도 공장, 주차장, 사무실, 쇼핑센터, 물류창고 등 바닥에 에폭시나 타제품으로 시공하고 계십니까?**

**선진국형 친환경 마감공법인 콘크리트 폴리싱 시공으로 한 번에 영구적 바닥 해결!**

강한 내구성, 친환경 시공, 쾌적한 표면, 작업환경의 개선  
저렴하고 용이한 유지보수, 화재에 강한 안전 바닥재

HTC SUPERFLOOR™  
콘크리트 바닥재의 새로운 혁명!

한국환경위생협동조합 주식회사 제라콘  
☎ 723-3090 010-5678-2586

신화역사공원 YG

대형 상가매장

일정리 카페

냉동창고 콘크리트 폴리싱

영상미디어센터

종달리 카페

동아동문 물류센터